

영암군민속씨름단, 충북 '보은장사대회' 2관왕...명성 다져

단체전 우승·김민재 백두장사...총 72회 타이틀 금자탑 쌓아
한라급 2위 최성환·3위 차민수 등 각 체급별 순위 이름 올려

영암군민속씨름단(감독 김기태)이 이달 19~23일 충청북도 보은군에서 열린 '보은장사씨름대회'에서 2관왕을 차지하며, 대한민국 최고 씨름단의 명성을 다졌다. 이번 대회의 백미는 대회 마지막 날 열린 단체전 결승전. 영암씨름단은 라이벌 울주군청(감독 이대진)과 마지막 판까지 가는 접전을 펼쳤다. 두 팀의 승부는 영암씨름단 차민수 장사의 포효로 마무리됐다. 차 장사의 승리로 영암씨름단은 최종 스코어 4:3으로 단체전 우승을 거머쥐었다. 영암씨름단이 올해 단체전에서 두 번째 타이틀을 따내는 순간이었다. 같은 날 백두장사 결승전에서는, 영암씨름단 소속 백두급 선수 3명이 모두 8강에 오르며 국내 중량급 씨름 최고 강팀임을 과시했다.

결승에 오른 김민재 장사는 수원특례시청 서남근 선수를 3:0으로 압도하며 개인 통산 5번째 타이틀을 차지하기도. 이 밖에도 영암씨름단 장사들은 한라급 2위 최성환, 3위 차민수, 금강급 3위 최정만, 백두급 4위 윤성민 등 각 체급 별 순위에 이름을 올렸다. 김기태 감독은 "영암군민과 함께하는 영암씨름단은 늘 최고의 경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영암군민의 응원 속에 대한민국 최고 씨름단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 선수들과 땀을 흘리겠다."고 밝혔다. 영암씨름단은 이번 대회에서 2관왕을 추가해 총 72회 우승이라는 금자탑을 쌓았다. 장사 59회, 전국체전 금메달 4개, 단체전 우승 9회의 성적이다.

영암=조대호 기자



LPGA 매치플레이 2연패 도전 '맏언니' 지은희 "우승 기억 생생"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벅크 오브 호프 매치플레이(총상금 150만 달러) 타이틀 방어에 나선 '맏언니' 지은희가 2연패에 자신감을 보였다. 대회 개막을 하루 앞둔 24일(한국시간) 지은희는 '디펜딩 챔피언 기자회견'에서 "이 대회에 좋은 기억만 가지고 있다. 걱정도 되지만 기대가 크다"며 "아직 지난해 우승한 기억이 생생하다. 행운이 계속되고, 좋은 경기를 하면 좋겠다"고 각오를 보였다. 이어 "타이틀 방어에 대한 걱정이 있다. 지난해 우승까지 이르는 과정에서 3라운드 때 18번 홀에서 타이틀 만들면서 16강에 갈 수 있었다. 그 다음부터는 좋았던 기억만 있다. 하지만 당시 3라운드를 생각하면 약간 걱정도 든다"고 덧붙였다. 이번 대회는 LPGA 투어에서 유일하게 매치플레이 형식으로 열리는 경기다. 총 64명이 4명씩 16개 조로 조별리그를 치러 각 조 1위가 16강에 오른다. 이후에는 결승까지 단판 토너먼트로 우승자를 가린다. 지난해 결승에선 지은희가 후루에 아야카(일본)를 꺾고 LPGA 투어 통산 6번째 우승컵

을 들어 올렸다. 지은희는 당시 36세17일로 한국 선수 LPGA 투어 최고령 우승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그는 "매치플레이는 실수하더라도 좀 더 공격적으로 하면 만회할 수 있다는 걸 알아 그런 부분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 같다"며 "큰 두려움 없이 매치플레이를 하면 좋은 결과로 이어진다는 매력이 있다"고 했다. "지난해 우승이 기뻐지만, 동시에 매우 피곤했다"는 지은희는 "체력이 뒷받침돼야 모든 매치플레이를 할 수 있다. 우승은 굉장히 기쁘고, 스스로 잘 했다고 칭찬했다"고 했다. 이어 "작년 우승으로 US 여자오픈 출전권도 얻었다. 피곤하고 지쳤지만 우승했다는 흥분을 가라앉히고 플레이해야 했다. 그만큼 보람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회는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의 새도 크리크 골프클럽에서 열린다. 지은희는 "홀마다 세팅된 점을 잘 생각해야 한다"며 "홀마다 어떻게 공략하고 특정한 샷을 특정한 방법으로 쳐야 할 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뉴스

프로농구 '2라운드 신화'...1981년생 최고령 김동욱 은퇴

우리나리로 마흔 세 살인 프로농구 최고령 선수 김동욱(42)이 코트를 떠난다. 24일 농구계에 따르면 2022~2023시즌을 끝으로 자유계약(FA) 자격을 얻은 김동욱이 현역 선수 생활을 정리하기로 결정했다. 김동욱은 대표적인 2라운드 신화로 불린다. 2005년 신인 드래프트에서 2라운드 4순위(전체 14순위)로 서울 삼성에 입단해 프로 생활을 시작했다. 아마추어 때부터 재목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대학 시절 두 차례 발목 수술과 적응 실패로 성장이 더뎠다.

삼성 입단 후 심기일전해 서장훈, 이상민, 이규섭, 강혁 등 쟁쟁한 선배들 틈에서 기회를 잡았고, 핵심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2011년 12월 김승현과 전력 트레이드, 오리온(현 데이원) 유니폼으로 갈아입었다. 전환점이었다. FA 대박과 함께 2015~2016 시즌 추밀승 감독의 지휘 아래 조 잭슨, 애런 헤인즈, 문태중, 허일영, 이승현, 최진수, 장재석과 화려한 공격농구로 우승 반지를 썼다. 신인 때 이후 두 번째 챔피언이다.

KIA, 나성범 6월말 복귀 예상...종아리 부위 90% 이상 회복

개막 2경기 만에 이탈한 김도영은 7월초로 내다봐

KIA 타이거즈 나성범(34)과 김도영(20)의 복귀 시점이 잡혔다. KIA는 23일 나성범과 김도영이 세종 정형외과에서 재검진을 받았다고 알렸다. 복귀 목표 시기는 나성범은 6월말, 김도영은 7월초로 내다봤다. 왼 종아리 근육 손상으로 아직 올 시즌을 시작하지 못한 나성범은 이번 검사에서 종

아리 부위가 90% 이상 회복됐다는 진단을 받았다. 약 2~3주간 근력강화 및 기술훈련, 러닝 훈련을 실시한 후 퓨처스(2군) 경기 출장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김도영은 왼 중족골(새끼발가락) 골절로 개막 2경기 만에 이탈해 치료 중이다. 이번 재검사 결과 골절 부위가 90% 정도

불었다는 소견을 들었다. 이에 가벼운 러닝 훈련과 부분적인 기술훈련도 가능해졌다. 약 3~4주간 기술 훈련을 실시한 뒤 상태를 살펴 퓨처스 경기 일정을 잡을 예정이다. KIA는 주축 타자들의 이탈에도 22일까지 18승18패로 5할 승률을 유지하며 6위에 올라 있지만 나성범과 김도영이 건강하게 복귀하면 순위 경쟁에도 본격적으로 뛰어올 수 있다.

이슬비 기자

김은중호 수문장 김준홍 "빛준홍이란 별명에 감사"

U-20월드컵 1차전에서 선방쇼...프랑스에 2-1 승리



22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멘도사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 F조 조별리그 1차전 대한민국과 프랑스와의 경기에서 김준홍이 수비하고 있다.

김은중호의 골키퍼 김준홍(김천)이 2023 국제축구연맹(UEFA) 20세 이하(U-20) 월드컵에서 다시 한 번 선전을 약속했다. 김은중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지난 23일(한국시간) 아르헨티나 멘도사의 멘도사 스타디움에서 열린 프랑스와 대회 F조 조별리그 1차전에서 2-1로 승리했다. 조에서 최강으로 꼽히는 프랑스를 상대로 먼저 2골을 넣으며 승리를 거두 토너먼트 진

출을 향한 파란불을 켜고. 골키퍼 김준홍은 연이은 슈퍼세이버와 안정적인 모습으로 골문을 굳건히 지켰다. 김준홍은 24일 대한축구협회를 통해 "수비수와 협력을 통해 수비수가 슈팅 각도를 줄이면 나머지는 책임지는 훈련을 많이 했다. 훈련장에서 했던 게 경기장에서 잘 나왔다"고 설명했다. 비록 페널티킥으로 1실점했지만 애매한 판

정이 아니었다면 클린시트도 가능했다. 이 경기에서 한국은 점유율에서 30%-57%로 크게 뒤졌고, 슈팅 개수에서도 9개-23개로 2배 이상 밀렸다. 김준홍이 경기내내 긴장감을 늦출 수 없었던 이유다. 1-0으로 앞선 후반 5분 자책골 위기에선 동물적인 감각으로 실점을 막았다. 상대 크로스가 수비수 머리에 굴절돼 빠르게 골문으로 향했지만 김준홍이 몸을 날렸다. 팬들은 '빛준홍'이라며 김준홍을 칭찬했다. 이에 대해선 "제 별명이라기보다는 팬들이 칭찬하는 의미도 만들어주신 것 같다.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26일)온두라스전에서 이기면 16강에 진출할 확률이 상당히 커진다. 이후 경기는 생각하지 않고 온두라스전에 모든 것을 걸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전북 현대 산하 유스팀 영생고 출신으로 2021년 6월 전북과 준프로 계약을 맺었다. 그해 K리그 1 무대에서 2경기를 뛰었고, 지난해에도 2경기를 소화했다. 김준홍은 '골키퍼 DNA'를 물려받았다. 김이섭 인천 유나이티드 골키퍼 코치의 아들이다. 김준홍은 "아버지께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하셨다. 이제 시작이니 매 경기 준비를 잘해서 더 좋은 모습을 보이려는 당부를 하셨다"고 설명했다. 프랑스의 매서운 공격에 잘 버틴 수비수 김지수(상남)는 "프랑스전에서 많은 것을 쏟아냈기 때문에 지금은 몸이 좀 무겁다. 최대한 빨리 회복해 다음 경기 준비를 잘하겠다"고 다짐했다. 한국과 온두라스의 2차전은 오는 26일 오전 6시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김하성, 5경기 연속 안타 행진...샌디에이고 2연승

김하성(28·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이 5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벌였다. 김하성은 24일(한국시간) 미국 워싱턴DC 내셔널스파크에서 벌어진 2023 메이저리그(MLB) 워싱턴 내셔널스와 원정경기에서 2번 타자 겸 3루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1안타를 쳤다.

지난 18일 캔자스시티 로열스전부터 5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이어갔다. 다만 김하성의 시즌 타율은 0.236에서 0.235(149타수 35안타)로 조금 내려갔다. 김하성은 1회초 1사 주자 없는 상황에 맞은 첫 타석에서 상대 선발 매켄지 고어의 바깥쪽 낮은 커브를 건드렸다가 3루 땅볼로 물러났다.

2회초 2사 1, 3루의 찬스에서는 파울팁 삼진을 당해 아쉬움을 삼켰다. 김하성은 선두타자로 나선 5회초 좌익수 플라이로 돌아섰고, 6회초 2사 2루에서도 중견수 뜬공을 치는 데 그쳤다. 김하성의 안타는 8회초 5번째 타석에서 나왔다. 8회초 선두타자로 타석에 들어선 김하성은 상대 우완 볼펜 채드 쿨을 상대로 안타를 날렸다. 샌디에이고는 워싱턴을 7-4로 누르고 2연승을 달렸다.